

멕시코, 금년 상반기 거시경제 및 금리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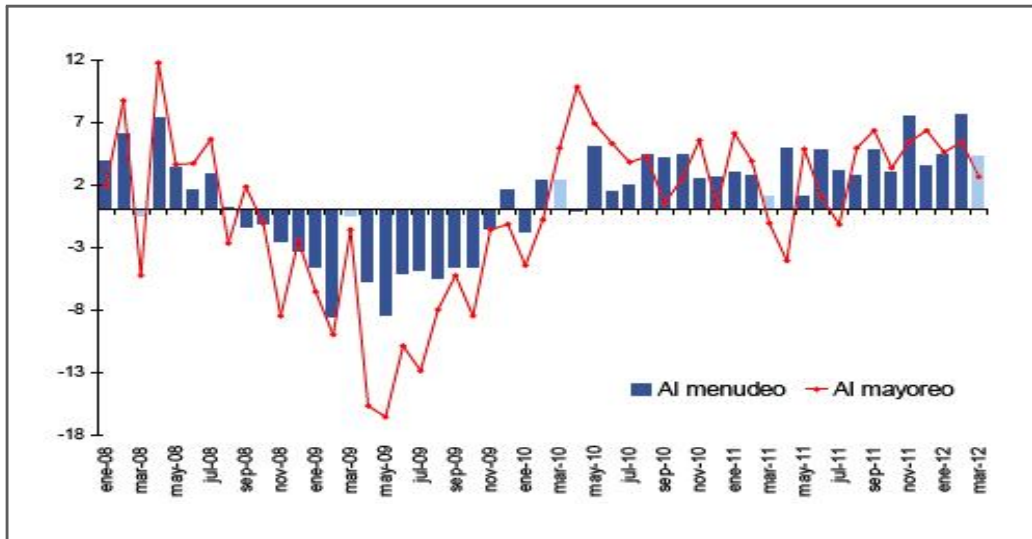
1. 거시경제 동향

□ 3월 소매판매 4.3% 증가

- 3월 멕시코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에 비해 4.3% 증가하였고, 도매판매는 전년 동월에 비해 2.6% 증가하였음.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수치로는 도매판매는 전월에 비해 0.03% 증가하였고, 소매판매는 전월에 비해 0.53% 감소하였음.

<그림 1> 월별 도·소매판매 증가율

단위: %



자료: 멕시코 통계청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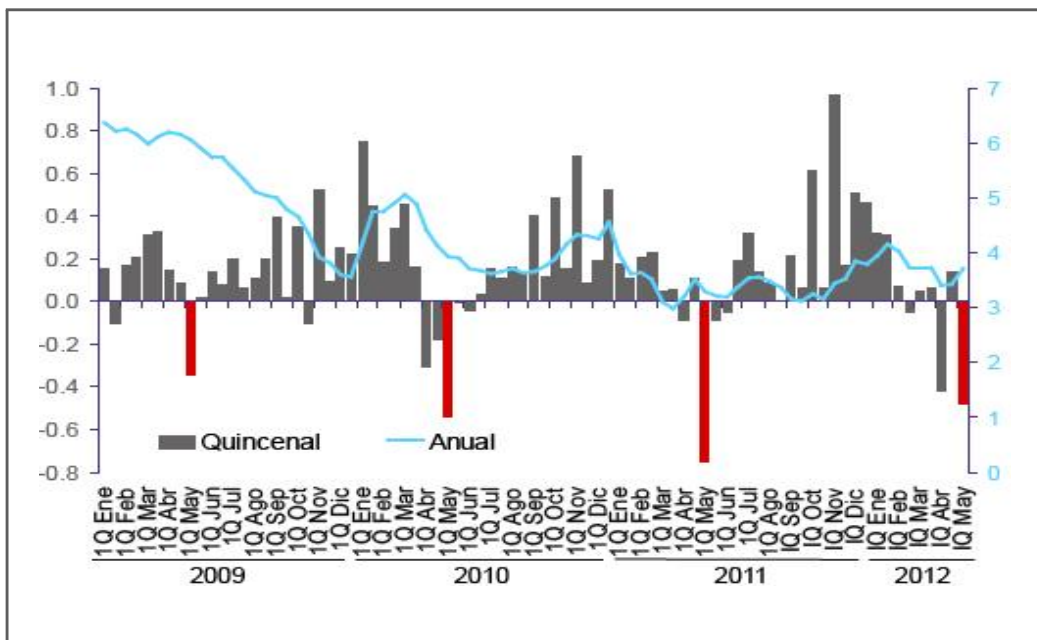
□ 5월,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0.44%포인트 상승

○ 5월 멕시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.44%포인트 상승한 3.85%를 나타냄. 이는 전년 동월 소비자물가지수인 3.25%보다 0.6%포인트 높은 수치로 최근 멕시코의 경기회복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.

<그림 2>

소비자물가상승률

단위: %



자료: 멕시코 중앙은행.

□ 4월 무역수지 흑자 5.6억 달러

○ 4월 중 무역수지는 5.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는 바, 이는 전년 동월의 무역수지 흑자 6.07억 달러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임. 2012년 4월까지의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총 23.25억 달러를 기록 중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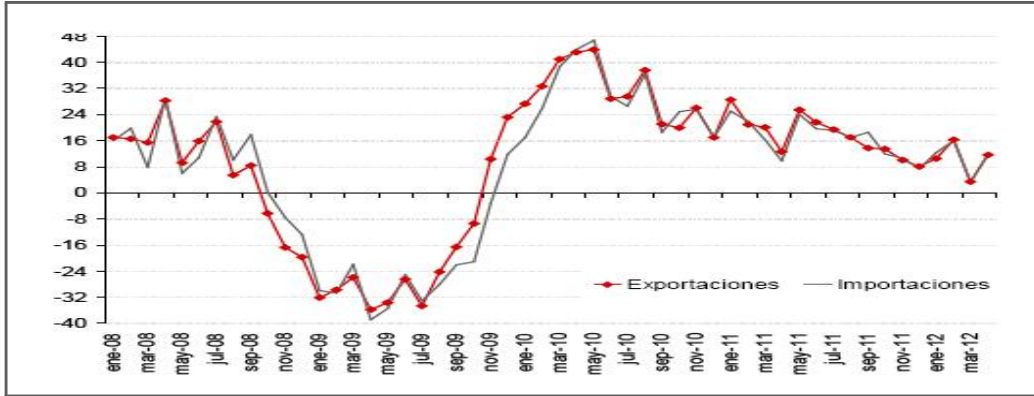
- 4월 중 수출은 11.6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(석유부문 1.4% 증가, 비석유류 제품 13.7% 증가), 수입은 12.1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.



<그림 3>

수출입 추이

단위: %



자료: 멕시코 통계청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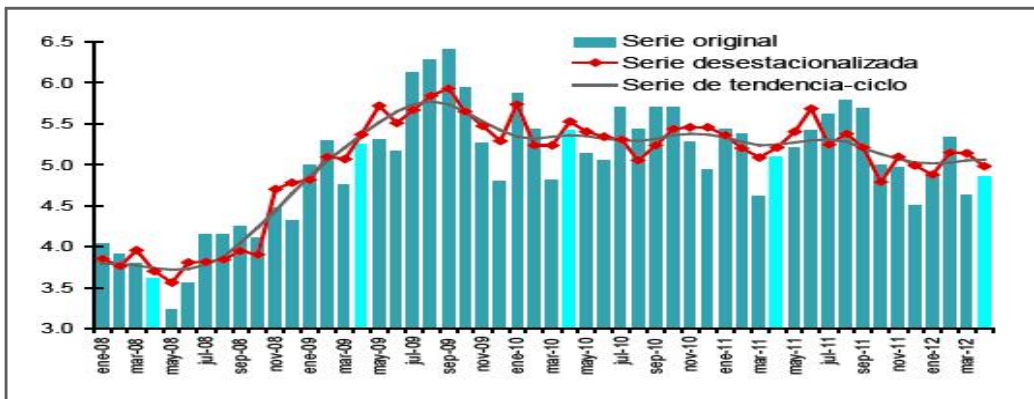
□ 4월 실업률은 4.86%

- 멕시코의 4월중 실업률은 4.86%로서 전년 동월의 5.1%에서 소폭 하락하였음. 성별로 보면, 남성의 실업률은 전년의 5.04%에서 4.84%로 하락하였고, 여성은 5.20%에서 4.90%로 하락하였음.
-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실업률은 4.98%로서 전월에 비해 0.16%포인트가 하락하였고 4월중 가장 실업률이 높은 주는 치와와주(7.76%)와 과나후아토주(6.89%)이고 실업률이 가장 낮은 주는 차아파스주(1.87%)와 캄페체주(2.09%)임.

<그림 4>

실업률 현황

단위: %



자료: 멕시코 통계청.



2. 금리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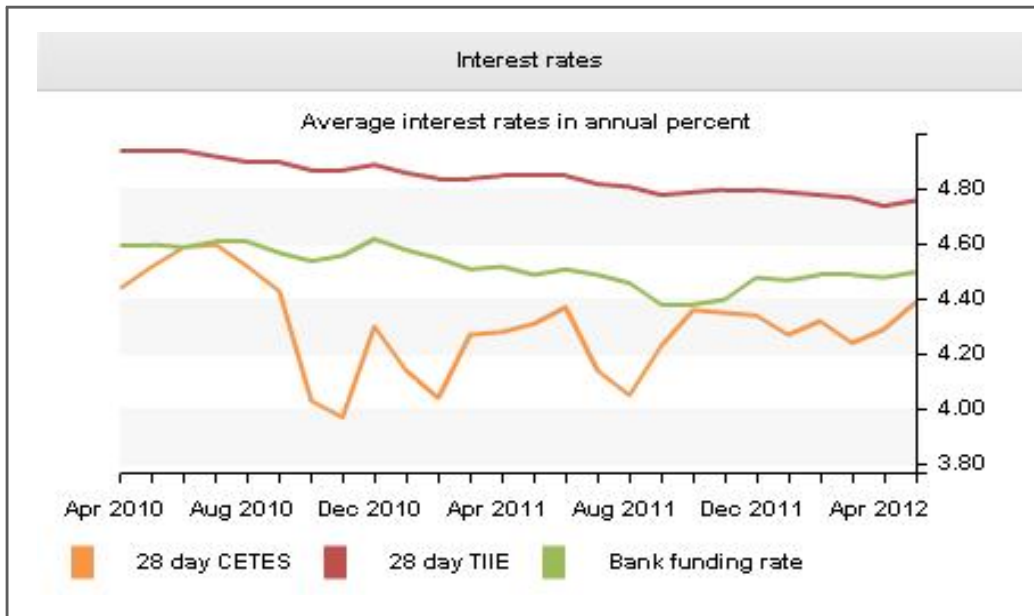
□ 기준금리 동결 지속

○ 2012년 6월 8일 멕시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.5%로 동결하였음. 이는 2012년 멕시코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.

- 멕시코 중앙은행은 2012년 경제성장률이 3.25~4.25%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였고, 완만한 국내 수요 증가세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둔화를 이유로 물가상승률이 3~4%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.

<그림 5> 멕시코 중앙은행의 주요 금리 추이

단위: %, 연리



자료: 멕시코 중앙은행(Banco de Mexico).

【방 인 식】